

# 내 논에 사는 생물, 전문가와 조사

### 농진청, '농업인과 함께 하는 생물조사법' 현장에 적용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생태나 환경에 대한 농가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 하는 생물조사법'을 연구 현장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농업인이 직접 생물 조사에 참여해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의 중요한 공익기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수행했다.

농업인과 함께 하는 생물조사는 생태 전문가와 농업인이 협력해 농업인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논에 서식하는 생물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충남 홍성 충북 청주, 경남 고성, 전남 함평과 화순, 장흥 6개 지역에서 평소 환경과 생물에 관심이 많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논 주변의 지리적 위치와 기상, 주변 환경과 특징 등을 종합한 정보와 논둑을 따라 걸으며 포충망으로 생물을 잡아 개체 수를 기록했다.

또한, 논둑에 5m 간격으로 땅을 파

서 트랩을 설치한 다음 2주 후에 개체 수를 적었다.

3년 동안 조사한 결과 논에서 거미류, 딱정벌레류, 메뚜기류, 노린재류 등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홍성에서 거미류, 화순에서는 메뚜기류가 주로 출현하는 등 재배 환경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참여 농업인들은 논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관찰한 후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서 생태체험이나 치유 농업과 관련된 활동 등을 펼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내서를 제작해 농업인과 학생, 도시민 등 생태나 환경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 기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 홍성에서 벼를 재배하는 정해일 농업인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농촌진흥청은 생태나 환경에 대한 농가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 하는 생물조사법'을 연구, 현장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생물과 해충의 생활사를 자세히 알게 됨으로써 해충 예방이나 방제 시기를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박상구 과장

은 "이번 연구를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해 농촌 환경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환경의 가치를 발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7일,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 전기안전공,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김장·연탄 봉사 등 사회공헌 펼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7일,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에는 공사를 비롯한 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3개 기관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총 3,000만원의 기부금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김장 김치 3,650kg과 연탄 7,500장을 취약계층 76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 임직원들은 지난 6일 단체인월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선 바 있다.

박지현 사장은 "우리가 직접 전하는 작은 나눔을 통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며 "지속적인 복지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실천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국민연금, 온실가스 감축 2년 연속 '환경부장관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7일 환경부 주관 2021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성과보고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2011년부터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공공부문 목표관리기관을 선정하고, 감축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기관유형별·권역별·연속 목표 달성 기관 등 3개 분야 총 15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공단은 지난해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대비 38.8%를 감축해 권역별(전라권) 최상위 감축 기관으로 선정, 포상금 1천만 원과 함께 2년 연속 '환경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권장감축률을 10년 연속 달성해 공로와 현관도 함께 수여받았다. 김윤상 기자



### 국산 만감류 '윈터프린스' 수확 한창

7일 제주도 애월읍의 한 감귤 농장에서 농민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국산 만감류 '윈터프린스'를 수확하고 있다. '윈터프린스'는 당도(12.5~13.5브릭스)가 높고 신맛(신도 1.0~1.2%)이 적당하며 껍질이 잘 벗겨져서 같은 시기 출하하는 '황금향'의 경쟁 품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도내 뷰티 중소기업 국내외 판매 지원 앞장

### 경진원, 뷰티x패션 콜라보

####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유통 판로 개척 도움

코로나 시국이 지속되며 도내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이 뷰티 업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꼭 막힌 유통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유통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며 주목을 받고 있다.

경진원은 적합한 마케팅 솔루션을 제안하며 기업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아직 브랜드인지도가 낮은 도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2개 채널과 협약을 맺고 기획전, 할인 쿠폰 제공의 지원사업을 제안하며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지원 사회적 가치를 전하는 화장품 생산 기업 '지리산차령농조합법인'에게는 기업 정체성에 어울리는 네이버 해피빈 공감 펀딩이라는 채널을 지원하며, 현재 목표 금액보다 40%를 초과한 금액을 모금하고 있다.

기존 채널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 판로개척을 위해서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화장품 업체 (주)에이알엔지와 도내 유명 소공품 (주)유유겔즈의 콜라보레이션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패션 업계의 뷰티 제품 판매가 트렌드로 자리잡은 지금, 탁월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에이알엔지와 (주)유유겔즈의 협업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2008년 설립되어, 연간 매출액 500여 원에 달하는 여성이류 소공품 유유겔즈와 2006년 설립되어 단일품, 투비어레이디 등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 (주)에이알엔지는 약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제품 테스트를 거쳐 여성수 95% 토너팩드를 출시하였다. 해당 제품은 (주)유유겔즈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각국 수출 채널을 통해 판매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진원은 2019년 베트남 해외통상거점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뉴델리 해외통상거점센터를 개소하며 현지 홍보, 진성 바이어 발굴, 봉변역 지원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현지로 나갈 수 없지만 해외통상거점센터를 활용해 현지에서 코스메티쇼를 개최, 제품 디스플레이, 메이킹아트 시연 등을 진행했다.

이후, 해외통상거점센터는 도내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와 도내 업체를 주선해,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총력을 다하며, 좋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중국 시장을 겨냥해 중국 라이브 커머스 Tiktok China 사업을 통해 마케팅 전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도내 6개 뷰티 업체는 중국 인플루언서 '왕홍'을 활용하여 틱톡 타겟 광고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온라인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현웅 원장은 "다양한 기업들이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경쟁력을 갖추도록 이외에도 온라인 홍보 컨텐츠 제작지원, 글로벌 셀러 온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앞길이 막막한 기업에게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사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나은 사업을 개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자립준비 청년 취업역량 강화 확대

### 전기안전공, 폴리텍 전북과 '스마트전기 전문기술과정' 개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열여덟 어린'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공사는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와 함께 '열여덟 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직업경험과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전기 전문기술과정'을 개설했다.

스마트전기 전문기술과정은 국비지원 과정으로, 교육비는 물론 기숙사비·식비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수료 시 국가기술자격증인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특점이 있다.

오는 20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하며,

만 15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전국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박지현 사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당당히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간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월 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와 '열여덟 어린! 드림(Dream) ON!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립준비청년이 낮은 세상에 나가 꿈을 밝힐 수 있도록 교육 및 일자리 연계 지원을 펼치는 등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개공, 외부문서 배부 업무 자동처리 RPA 개발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매일 수십건이 넘는 외부문서 배부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개발해 업무효율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약 20만건의 전자문서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에게 학습시키고, 문서의 성격 등을 분석하여 업무담당부서로 자동으로 배부하는 기술을 구현했다. 아울러, 보안 문서의 오배부 등 오작동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문서관리자가 직접 보안문서를 처리하여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공사는 사용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RPA를 지속 고도화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 직원들이 단순반복적 행정업무에 적잖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랑공기업 핵심 업무에 집중, 업무 효율화 및 생산성이 높아지고 좀 더 스마트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2021년도에는 임대관리, 급여, 지출 업무 분야의 10개 RPA 과제를 발굴·개발해 연간 1500여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메타버스 활용 비대면 업무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해 스마트 공개비전 달성을 위해 나아가길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 '노란우산 재적가입 150만 기념행사'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노란우산 가입고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우산 재적가입 150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출범 후 14년 동안의 노란우산 주요성과와 비전을 담은 영상 시청, 유공자에 대한 공로패·기념패 수여, 내년도 홍보대사 위촉, 150만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 전 과정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채 이뤄졌다.

주요성과로는 2007년 9월 출범한 지 14년 만인 올해 7월에 재적가입 150만, 부금 16조를 돌파했고, 12월 현재는 재적가입 153만, 부금 17.7조에 이르렀으며, 향후 2030 비전으로 재적가입

300만, 부금 40조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란우산 도입 초기 어려운 여건에서도 제도의 조기 정착 및 가입 확대에 기여한 공로자 및 가입자에게 공로패와 기념패를 전달했다.

당시 기업은행 강권서 행장은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하나은행 김정태 행장은 전 지점 카운터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시작해 좋은 실적을 올려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내년도 노란우산 홍보대사로 개그맨 김준현과 가수 양지은을 위촉하며, 향후 TV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노란우산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